

봉독요법 강좌(蜂針療法講座)



회장 고상기(高相基)
한국봉료보건연구회
국제봉료보건학술연구회 부회장

- 지난호에 이어서 -

제4장 의료분야(醫療分野)에서의 봉독(蜂毒)의 응용(應用)

제1절 봉독(蜂毒)의 임상효능(臨床效能)

3. 심혈관질환(心血管疾患)

일찍이 1864년 러시아의 한 임업연구소의 루코무스키(M. I. Lukomsky)교수는 '봉독요법'이라는 논문에서 봉침을 통하여 협심증과 간헐적인 파행(跛行)(하지혈관의 폐색으로 인한 맥관염의 전형적인 증상)을 치료한 경험을 발표한 바 있다.

1955년 스커스키(J. Skursky)는 『비엔나의학주간』에서 순수한 봉독을 정맥주사하여 관상동맥의 혈액공급 부족이 있는 환자 100명을 치료한 결과 협심증이 감소하거나 소실되었다고 했으며, 심전도상으로도 호전되거나 정상으로 회복된 결과를 보였다고 발표하였다.

1962년 살리코프(V. I. Salmikov)는 일찍이 봉독제제를 사용하여 협심증 환자 43명과 심근경색 환자 13명을 치료한 결과, 혈압이 너무 낮아 치료를 중지한 환자 2명 외의 기타 45명에게서는 모두 일정한 치료효과가 나타났다고 발표하였다.

(1) 고혈압질환(高血壓疾患)

고혈압은 인체의 건강을 위협하는 흔한 질환으로써 동맥의 혈압이 증가되는 것이 그 주요 임상 증상이며, 아올리 어지러움, 이명, 불면 등의 증상을 수반한다. 봉독은 혈압을 낮추는 작용이 있어 고혈압을 치료하는 데 있어 많이 쓰여 왔고, 또한 그동안 많은 실험적 연구가 있어 왔다. 1937년 세란케(L. Ceranke)는 봉독 이온투입법으로 고혈압 환자 800명을 치료한 경험을 발표했다.

1958년 코노넨코(I. F. Kononenko)는 일찍이 봉독주사로 고혈압 환자 830명을 치료했는데, 치료를 통해 혈압이 정상적으로 하강한 환자가 289명이었고, 혈압이 현저하게 낮아진 환자가 420명이었으며, 효과가 없었던 경우가 121명이었다. 환자의 자각증상이 신속하게 호전되었고, 혈중 콜레스테롤의 양과 칼륨, 칼슘 등의 지수도 정상수준에 근접하게 되었다. 봉독은 갱년기 증후군으로서의 고혈압에도 또한 뛰어난 치료효과를 발휘한다. 봉독이 혈압을 낮추는 작용은 신경절을 차단하는 작용과 유관한 것으로 추측



되고 있는데, 코노넨코(I. F. Kononenko)는 봉독 제제를 주사한 후 환자에게서 신속하게 나타나는 혈압강하반응이 봉독의 반사성작용의 결과라고 여겼다.

방주(房柱)(국제봉독보건연구회 회장)는 1959년 발표한 봉독에 관한 논문에서 고혈압질환 환자 12명을 치료한 경험을 소개하였는데, 그 결과를 보면 완치된 환자가 2명, 현저한 효과가 나타난 경우가 4명, 약간의 효과를 보인 경우가 3명,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던 경우가 3명이었다. 이 논문에서 발표한 전형적인 병례의 환자는 지금까지 43년 동안 여전히 양호한 건강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예) 詹×海, 남자, 1936년생, 1958년 11월 고혈압이 발견되어 4년 동안 요양하면서 두통, 어지러움, 불면 등의 증상으로 인해 2년 동안 치료했으나 효과가 없었다. 1957년 갑자기 졸도하여 두 시간 동안 깨어나지 못한 적이 있었고, 환자는 이미 치료에 대한 믿음을 상실한 상태였다. 이 환자는 고혈압 Ⅱ기로 판명되어 반달 동안 요양하였으나 증상이 감소되지 않았고, 혈압은 21.1~18.9/14.7~13.3kPa였다. 피하주사로 봉독유(蜂毒油) 2호(KF2제제에 해당)를 매일 3~6ml씩 투여하였는데, 50일이 경과하자 고혈압 증상과 두통, 불면 등의 신체증상이 모두 소실되었다. 그리고 이후 44년 동안 고혈압이 재발하지 않았다.

중국근층학회에서는 1962년 양봉학술토론회상에서 요자유(姚慈幼)와 요안진(姚安晋)이 봉독으로 고혈압 환자 72명을 치료한 결과를 발표하였는데, 그 결과를 보면 완치된 경우가 22명, 현저하게 호전된 경우가 42명, 증상이 다소 개선된 경우가 4명, 효과가 없었던 경우가 2명, 기타 치료를 중단한 경우가 2명이었다.

(2) 혈전폐색성맥관염(血栓閉塞性脈管炎)과 기타 혈관질환(血管疾患)

혈전폐색성맥관염은 주위혈관의 만성폐색성질환으로서 하지에 가장 많이 나타나는데, 초기에

는 간헐적인 파행(跛行)과 동통 등의 증상이 있다가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하지말단의 괴사가 나타난다.

20세기 50년대로부터 구소련의 자이체프(G. P. Zaicev)교수 등은 이미 봉독을 이용하여 혈전폐색성맥관염과 사지동맥의 죽상경화를 성공적으로 치료하였는데, 1964년 그들은 일찍이 봉독으로 맥관염 환자 182명과 지체동맥의 죽상경화 환자 318명을 치료하였다. 맥관염 환자 182명 가운데 75명은 양호한 치료결과를 얻었고(그 가운데 I기가 30명, II기가 45명), 106명은 그 증상이 다소 호전되었으며(그 가운데 II기가 82명, III기가 24명), 단지 1명만이 과거에 지체절단수술을 받았던 IV기 맥관염 환자로서, 봉독을 이용한 치료가 효과를 보이지 않았다.

봉독으로 사지동맥의 죽상경화가 나타난 환자를 치료할 경우에 치료 효과는 약간 부족한 바가 있었는데, 318명 가운데 58명이 양호한 치료 효과를 얻었고(그 가운데 I기가 18명, II기가 40명), 242명은 증상이 다소 호전되었고(그 가운데 II기 192명, III기 50명), 또한 III기 환자 11명과 IV기 환자 7명은 치료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1960년 제발트(G. P. Zebaldt)는 봉독으로 맥관염 환자 126명을 치료한 결과를 발표했는데, 그 가운데 85%의 환자가 치료효과를 보였다. 고사와(古謝娃)는 1971년 봉독으로 동맥내막염을 치료하여 60%의 치료율을 얻은 결과를 발표했는데, 반드시 혈관이완제를 함께 사용해야 한다고 하였다.

방주(房柱)도 또한 그의 임상경험을 통해, 봉독을 손상이 비교적 심한 말기 맥관염 환자에 사용할 때보다 병변이 아직 경미한 맥관염 초기환자에 사용할 때 치료효과가 뛰어나다고 보고했다. 또한 그는 맥관염의 발생과 진전에 있어 흡연과 한습(寒濕)의 영향이 매우 크다는 것을 강조하였는데, 반드시 환자로 하여금 금연을 하도록 하고 기후의 변화에 주의하도록 해야 한다고

하였고, 이런 사항들이 치료효과를 배가하는 데 많은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방주(房柱)는 일찍이 봉독으로 맥관염을 치료한 후 치료효과가 있었던 환자에 대해 지속적인 관찰을 실시한 바 있는데, 이 환자는 금연과 한습(寒濕)의 기후인자에 대한 권고에 주의하여 지속적으로 양호한 상태를 유지했다. 그러나, 5~6년 이후 마비 증상이 나타났는데, 이는 다시 흡연을 시작하고 한습(寒濕)-어업에 종사-에 의해 손상을 받아 맥관염이 재발한 것이었다. 이렇게 재발한 환자에 대해서도 봉독에 의한 치료는 여전히 그 효과를 발휘했다.

이 외에도 혈전성정맥염, 뇌동맥죽상경화, 뇌혈전 등의 질환에도 봉독은 치료효과를 발휘한다.

4. 기관지천식(氣管支喘息)등의 알레르기성 질환

알레르기 반응은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항원이 체내에서 그 작용을 발휘하여 생기는 일종의 특이 반응을 말한다. 봉독은 이런 과민반응을 억제함으로써 알레르기성 질환을 치료하는 용도로 쓰일 수 있다.

일찍이 1936년 하아그(F. E. Haag) 등은 봉독을 이용하여 15명의 화분증(花粉症) 환자를 성공적으로 치료한 바 있다.

1941년 캄머러(H. Kammerer)는 봉독을 피내 주사하면서 그 제량을 10-6의 극소량으로부터 10-1까지의 용량으로 사용하여 알레르기성 질환을 치료할 것을 권고하였다.

비스코프는 1954년 봉독유(KF1제제)를 이용하여 담마진(蕁麻疹), 혈관신경성 수종, 기관지 효천(哮喘), 혈관수축성 비염, 경련성 결장염 등의 환자 211명을 치료한 바 있는데, 그 가운데 152명이 치료효과가 있었다. 또한 만성 재발성 담마진(蕁麻疹), 혈관신경성 수종 및 담마진(蕁麻疹) 유사질환에 대한 치료효과가 특히 뛰어났다 (69명 중 62명에서 유효).

알렉스커는 1964년 일찍이 봉독으로 과민성 자

반(紫斑) 환자 6명을 치료한 바 있는데, 그는 치료제량의 봉독에 피질호르몬과 유사하게 모세혈관의 투과성을 낮추는 작용이 있다고 여겼다. 기관지 효천(哮喘)은 흔히 발생하는 일종의 발작성 알레르기 질환이다. 기관지의 경련이 발작할 때 환자에게 뚜렷한 호흡곤란이 발생하며, 아울러 그르렁 하는 소리가 울리는 까닭으로 기관지 효천(哮喘)이라 이름하게 되었고, 간단히 효천(哮喘)이라고도 한다.

비스코프는 1954년 봉독(KF2제제)을 응용하여 기관지 효천(哮喘) 환자 59명을 치료하였는데, 그 가운데 30명에게서 양호한 치료효과를 얻었다. 1958년 보이티크(V. F. Voitick)도 봉독(KF2제제)을 응용하여 기관지 효천(哮喘) 환자 85명을 치료하여 그 가운데 26명이 치유되었다. 알렉스커는 1964년 280명의 기관지 효천(哮喘) 환자를 관찰한 바 있는데, 그 가운데 여자가 171명, 남자가 109명이었고, 이들의 연령은 15~70세였다. 이들 가운데 50명은 봉침을 통한 치료를 받았고, 90명은 봉독주사를 맞았으며, 50명은 봉독주사와 호르몬제를 배합한 치료를 받았고, 나머지 90명의 대조군은 기타 약물을 이용한 종합적 치료를 받았다. 봉독을 이용한 치료는 대개 6~8주(때로는 10주)를 한 단위의 치료과정으로 삼았다. 한 단위의 치료과정은 그 과정 중에 250~500마리의 꿀벌의 침을 맞거나 독일의 봉독제제인 봉산통(蜂散痛) 5~8mg을 주사하는 것이었다. 어떤 환자의 경우에는 3~5년의 기간 동안 2~5단위의 치료과정을 진행하기도 하였다.

봉독을 이용한 치료를 받은 많은 환자들은 양호한 치료효과를 얻어 효천(哮喘)의 발작이 정지되었고, 호흡곤란이 감소했으며, 모든 환자들이 봉독이 거담작용을 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단기간의 치료효과를 통해 볼 때 봉독과 호르몬제 또는 기타 종합적 약물치료는 서로 비교하여 특별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는데, 치료 후 1~5년의 장기효과에 있어서는 봉독의 치료효과

가 가장 뛰어나 그 장기간의 유효율이 80%에 달했다(표 29 참조).

지속적인 관찰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 단기간의 치료효과를 보면, 완치된 환자가 18명(72%)이었고, 다소 호전된 경우가 6명(24%)이었으며,

표 29. 기관지 효천(哮喘)에 대한 봉독의 치료효과

치료방법	환자수	효천(哮喘) 발작의 정지 또는 감소		효천(哮喘) 발작의 정지 또는 극소발작 (치료 후 1~5년 동안의 장기치료효과)
		치료과정 중기	치료과정 말기	
봉독주사 또는 봉침	140	76(54.0%)	116(82.9%)	112(80.0%)
피질호르몬 또는 ACTH	50	33(66.0%)	47(94.0%)	11(22.0%)
기타 종합약물요법	90	56(62.0%)	60(67.0%)	15(16.7%)

치료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경우가 1명(4%)으로 나타나 총유효율

1971년 차트첸코(N. S. Chartchenko)는 봉독소(Toxapin)를 이용하여 각 종 증후를 지닌 기관지 효천(哮喘) 환자 26명을 치료하였는데, 그 결과 효천(哮喘)의 발작이 소실된 환자가 18명, 발작이 경감된 환자가 4명, 별다른 치료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환자가 4명이었다. 환자들에게서는 증상의 개선이 나타난 동시에 담(痰) 증의 호산성 세포와 차르코트-뉴만 결정(Charcot-Neumann's crystal), 커슈만 나선(Curschmann's spiral)이 소실되었는데, 이는 봉독소가 기관지 효천(哮喘)을 치료하는 유효한 치료제가 됨을 보여주는 것이다.

방주(房柱)의 기존의 임상경험을 통해 볼 때, 봉독으로 기관지 효천(哮喘) 등의 알레르기성 질환을 치료할 경우에는 그 용량을 적게 해야 하며, 단순성 효천(哮喘)과 소아의 효천(哮喘)은 봉독을 이용한 치료효과가 성인에 합병증이 있는 경우를 치료하는 것보다 뛰어나다고 하였다. 1993년 제 2차 국제봉료대회에서 방주(房柱) 등은 심유(心俞), 폐유(肺俞), 격유(膈俞) 등의 혈위에 대해 초음파치료와 봉교(蜂膠)의 분무흡입을 배합한 치료법을 통해 기관지 효천(哮喘)을 치료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 치료법을 시행한 25명(남 9, 여 16)의 환자 가운데 감염형은 7명, 흡입형은 9명, 혼합형은 9명이었고, 평균연령은 29세였으며, 평균이환기간은 9.7년으로 모두 발작기의 환자였다. 치료 전후 환자의 증상의 변화를 관찰하였고, 치료가 끝난 후에도

이 96%에 달했다. 그 후 1~2년 동안 지속적인 관찰을 하여 13명의 장기치료효과를 살펴보면, 현저한 치료효과가 나타난 경우가 4명(30.8%), 다소 호전된 경우가 6명(46.2%), 치료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경우가 3명(23%)으로 총유효율이 77%에 달했다.

- 다음호에 계속 -

영양강화 최고급 산란촉진 영양제!

- 사포알부민(대용화분) - 분말형(3kg)
- 사포알부민(대용화분) - 떡밥형(1kg)
- 헵시바시럽(벌영양제) - 액체형

- ※ 사포알부민 : 비타민C를 비롯한 꿀벌에 필요한 영양성분인 알부민, 루틴 등 20여가지의 영양성분이 첨가돼있는 초강력 영양화분입니다. (한국식품개발연구원과 공동개발)
- ※ 헵시바시럽 : 프로폴리스 및 미네랄, 구연산, 칼슘, 루틴 등 20여가지의 영양소가 함유된 영양제 (발명특허 0393028호 응용 수용액)

대한산업

경남 거창군 남상면 전척리 504-8
TEL : 055)944-6789, 8262
H.P : 011-551-0428
결제구좌(농협) : 841115-52-044771(국동호)